

북한개발소식

2022 AUG

08

통권 202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제 7차 핵실험 위협과 북한선교

서평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안보의 균형

북한뉴스

북한의 군사도발 중단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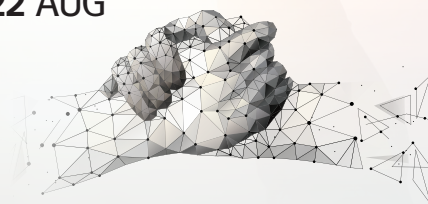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2 AUG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제 7차 핵실험 위협과 북한선교

권두칼럼	01	북한의 제 7차 핵실험 위협과 북한선교
칼럼_1	10	유영식_북한의 추가 핵실험 의도와 그 영향
칼럼_2	16	안찬일_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과 그 영향
칼럼_3	22	김에스라_김정은의 자충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향후 전망
북한뉴스	29	한미, “북한의 핵 실험 시간문제, 북한의 결심만 남은 상태” 외
서평	33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안보의 균형
Heart To Heart	36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화: 오픈도어 익스트림 기도 축제”
북한 기도 제목	38	북한의 군사도발 중단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북한의 제 7차 핵실험 위협과 북한선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북핵 위기 고조와 추가 핵실험 위협

올해 초부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 및 군사 도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러한 군사행보는 핵과 미사일 무기 체제 개발로 이어진다. 북한은 올해 초 열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 즉 중단해왔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중 ICBM의 경우 3월에 이미 북한 측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한미 당국은 화성-15형으로 추정) 미사일의 발사가 이루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순방 직후에도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을 위한 움직임 역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월 6일 IAEA 이사회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가운데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¹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3번 갱도는 이미 복구되었고 4번 갱도의 경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갱도의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일회성이 아닌 연쇄적인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¹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VOA (2022.06.07.) <<https://www.voakorea.com/a/6605052.html>>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 3번 갱도의 모습. 풍계리 3번 갱도는 1, 2, 4번 갱도보다 폭이 좁고 지상으로부터의 깊이도 깊어서 이 갱도를 복구한다는 것 자체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있다.²

북한의 핵 실험 준비 정황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월 1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고 핵 실험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 준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38North에 기고된 7월 초 기준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그간의 장마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장을 계속 가동해왔음이 확인되고 있다.³

북한이 하지도 않을 실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설비를 보수하고 재가동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면 분명 북한은 추가 핵실험의 의지가 있거나, 적어도 이를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북한은 핵 실험을 실시했을

때의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며 시행 여부와 그 시기를 탐색중일 것이다.⁴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해도 장마철에는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장마철의 경우 비가 올 시 발생할 수 있는 핵 실험 장비 이동 제약 및 전기장치 교란 우려, 유사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한다.⁵ 제임스마틴 미 비확산연구센터 국장 역시 북한이 장마철인 여름을 피해서 적어도 9월까지의 핵실험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⁶ 정치적으로도 실험을 강행할 시 예상되는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핵 실험 준비 상황만 보면 북한은 이미 언제든지 핵 실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7월 20일 미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7월 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이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⁷

예상되는 핵 실험의 목적과 그 위험성

그렇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북한의 무기 개발 진행과정을 미루어 볼 때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아마도 수소탄 실험 또는 소형 핵탄두 실험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핵 실험의 현실적 여건이나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 의지 등을 고려하면 소형 핵탄두 실험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⁸

보통의 핵무기는 그 파괴력이나 이후 여파를 생각할 때 사용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무기이다. 피아를 가리지 않는 폭발력과 방사능 피해로 인한 어려움 뿐 아니라 무기 사용 시 필연적으로 전면전을 유발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최악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에 대한 미군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응징이 당연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그 살

4 서찬양, 전경주,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2.07.07)

5 북한 핵실험 변수로 '장마·동남풍' 거론…여름철 피하나, 연합뉴스 (2022.06.16.) <<https://www.yna.co.kr/view/MYH20220616020300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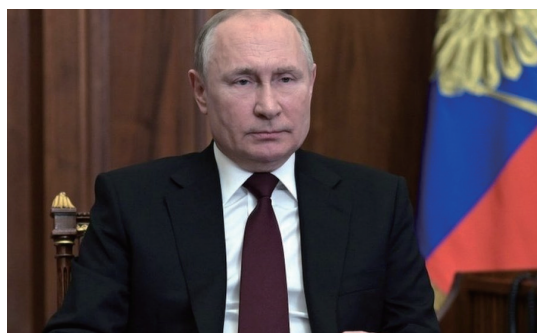
6 “북한, 장마철 피해 오는 9월까지 핵실험 안 할 것”, 연합뉴스 (2022.07.10.)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0005600504>>

7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우리측 준비 완료”, 연합뉴스 (2022.07.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2040100001?section=nk/news/military>>

8 김정섭,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22년 7월호) pp. 1-5.

2 [단독]IAEA 총장 “北 풍계리, 연쇄 핵실험 징후”, 동아일보 (2022.06.20.)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620/114006560/1>>

3 Peter Makowsky 외,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enter: Plutonium Production Continues Despite Heavy Rains” 38 North (2022.7.12.) <<https://www.38north.org/2022/07/north-korea-as-yongbyon-nuclear-center-plutonium-production-continues-despite-heavy-rains/>>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2월 27일 핵전력 운용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 외 여러 고위 관료들은 핵 사용 가능성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상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실제 도발용으로나 재래식 무기의 약점을 메꾸는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더 좋아진다. 예를 들어 핵을 공중에서 터트려 EMP탄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운용하면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남한 전역의 전자장비들 대부분을 무력화 할 수 있어 상

대방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⁹ 즉 핵을 사용하는 측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 위험성은 더욱 실제적이 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들은 대략 크기가 직경 53cm에서 67cm로 추정되는데 최근 북한이 발사했던 KN-23(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4 (신형 단거리 전술 유도탄, 북한판 ATACMS) 및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탑재하기에는 너무 커서 소형화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핵탄두의 소형화는 상당한 기술력이 요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추가 핵실험이 꼭 필요하다.¹⁰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욱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기본적으로는 재래식 무력의 열세를 메꿀 수 있으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을 가하여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행동을 제약하며 외교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우 전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세가 불리할 때 핵 충돌 위험을 거론하고 있는데, 북한도 러시아의 전술과 유사하게 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핵 벼랑끝 전술이다.¹¹

물론 추가 핵 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동반한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핵 실험이 이

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봉쇄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또한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끝까지 감행한다면 그 이득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될 때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협상 카드로서의 핵 개발에 주목한다. 협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보다는 적어도 물밑에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때, 즉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 중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¹² 그렇지만 핵을 체제 안보의 필수적 요소로 보고 있는 북한 당국이 협상의 목적만을 가지고 핵 실험을 도모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북핵 문제 장기화는 결국 북한 주민들의 피해로...

북한의 핵문제는 대북 제재 적용 이후 같은 맥락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즉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 체제 유지를 보장받는 가운데 제재 해제를 얻어 내길 원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양상이 평행선처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병진정책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핵은 북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혀왔다. 최근 코로나 19 방역을 명목으로 인한 봉쇄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 시작은 핵 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부터였다. 사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각종 지하자원 수출과 의류 임가공업의 발달 등으로 북한 경제는 활기를 띄었고 산업의 발전도 있었다. 하지만 연이은 4-6차 핵실험과 이로 인한 대북제재로 그 흐름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후 김정은 정권은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제재 해제를 노렸지만 실패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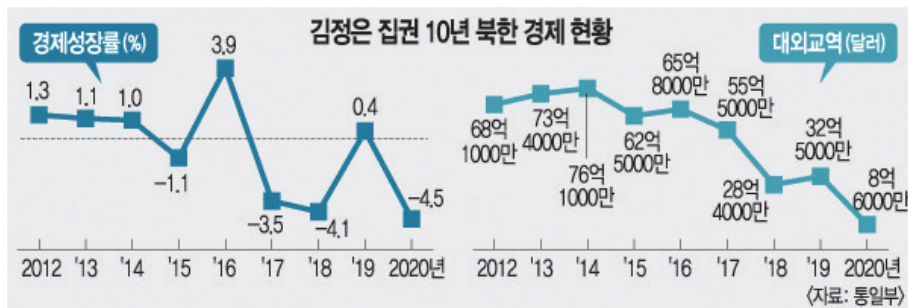
북한은 다시금 자력갱생을 외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면서 주변 우방국으로부터의 지원으로 버티는 모습이지만 이는 과거에 실패한 계획경제정책으로의 회귀에 가까우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북한의 의도는 결국 여전히 병진정책을 성공시키는데 있을 것이다. 즉 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실험 재개 위협

9 이상민 “북한의 전략도발 전망 및 대응”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 (2022.07.13.) <<https://www.youtube.com/watch?v=sOZbxrwfv-c>>

10 “북, 핵실험때 소형 핵탄두 완성 노릴 듯”,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2.04.02.),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_nuclear_talks-03312022154509.html>

11 이상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벼랑끝 전술의 진화”, 동북아안보정책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2.07.06)

12 서찬양, 전경주. 앞의 글, pp 6-7.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6~17년 이루어진 4~6차 핵실험에 따른 강화된 대북 제재가 적용됨에 따라 큰 폭으로 후퇴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다시금 악화되었다. 대외 교역 규모 역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료=통일부, 국민일보 재인용)〉

을 통해 비대칭 무기 개발 및 군비 증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제재 해제 등 양보를 얻어내어 경제를 회생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목적이 협상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은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나 24년 대선 등을 기점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build-up, 주로 축구에서 상대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상대팀 진영으로 전진하여 골을 넣기 위한 공격 전개 과정을 일컫는 말)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³ 북한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고 협상의 상대방인 서방세계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중 갈등, 러·우 전쟁에다가 다시 불발된 이란 핵협상 등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반도 군사위기 심화에 따른 예기치 않은 충돌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동아시아 핵도미노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서방세계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도 반대하고 있어 북한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 폐기가 아닌 확산 방지 쪽으로 협상의 논점이 옮겨진다면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남한, 일본, 대만 등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 핵 군비 경쟁을 넘어 세계가 다시금 냉전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북한이 말하는 체제 유지나 안전에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해

13 이상민, 앞의 토론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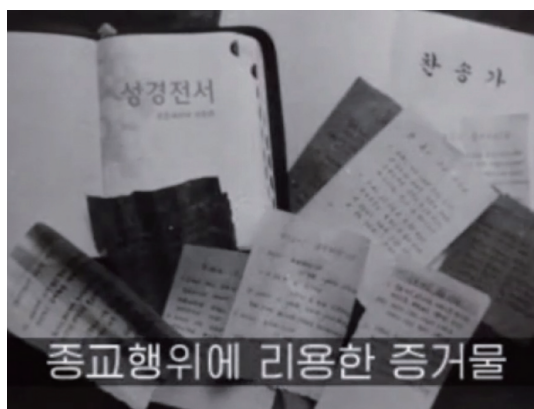
서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 가장 크게 고통 받는 이들은 북한의 서민들이다. 주민들은 핵 개발 제원 마련을 위해 수탈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제재로 인한 교역 제한과 외화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그 해결은 병진 정책이 아닌 핵을 생명줄로 부여잡고 있는 북한 당국이 착각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다.

악화되어가는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

현재로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전에 비해 더욱 상황이 엄중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은 커녕 이를 완충하기 위한 방안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교류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햇볕정책을 비롯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북 유화 정책이나 북한과의 민간 교류 확대 및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평화적인 교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를 오히려 북한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이 더욱 고도화 되다 보니 그에 비례하여 증폭되는 안보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북한이 함부로 군사 도발이나 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강경한 대응과 한미 군사 공조 강화 등의 노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자칫 남과 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게 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균열상 속에서 북핵 문제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변국들의 모습을 미뤄 볼 때 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으면서 핵에 매달리는 모습은 현 북한 당국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불안감은 열악한 경제상황과 심해지는 중국 의존도, 점점 더 벌어지는 남한과의 국력 차이 등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유사종교적인 사상을 이용하여 절대 권력을 휘둘러 온 북한 지도층이 느끼는 체제의 한



〈북한의 보위부 교육 영상에 삽입된 기독교 단속 관련 화면〉

명분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외부의 적을 세워두고 ‘이들을 무찌르는 길은 지도자의 영도를 따라 핵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것’이라는 논리를 주민들에게 되뇌고 있지만 십수년간 비슷한 논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회의감도 점차 누적되는 듯 보인다. 그나마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던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본격화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북미 대화도 물거품이 되면서 지도층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는 통제와 박해로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국경 봉쇄 상황을 오히려 주민들의 모임과 이동 통제, 그리고 한류와 기독교를 포함한 외부 사조 유입을 차단하고 단속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더 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북한은 주민들을 더욱 더 심하게 옥죄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체제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말 핵무기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 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기발한 해결책이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 좌절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을 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이해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역사의 물줄기는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 특히 무관심과 외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핵 문제가 수십 년간

계에 대한 불안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외부 세계를 알고 그로부터의 문화 및 정보 유입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게다가 과거와 같이 주민들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지도 못하는 가운데 집권 세력이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진전 없이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 군사적, 정치적 이슈의 이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도 더욱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영혼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선교에 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파송하며 지원하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뉴스가 북핵과 관련된 각국 지도자의 이야기와 복잡한 정치적 셈법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북녘의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곳이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를 보면 남북관계가 잘 풀리는 듯하고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사역이 증가하지만, 반면에 요즘과 같이 북한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핵문제와 같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쁜 뉴스가 많이 들릴 그 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저와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모두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여는 중보기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의도와 그 영향

유영식 (장로회신학대학교 북한·통일학 교수)

2022년 6월 현재, 6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또 한 번의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정부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단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이 원하는 시간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사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2017년 11월부터 줄곧 제기되고 있던 바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보도했지만, 6차 핵실험 성공으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무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북한으로서는 다탄두용 소형 핵무기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한 차례 정도 지하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제재로 손실은 발생했으나 당장은 참을만하며, 설사 고통이 가중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가 안겨줄 미래의 편익에 비하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하여 7차 핵실험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있었다.

7차 핵실험의 시점과 의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단행할지 아니면 단순한 위협으로 그칠지, 단행한다

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국제사회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갭도 복구를 7차 핵실험 징후로 진단하고, 연이은 당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2022.6.8-10)에서 핵실험과 관련된 주요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았으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만 거듭 언명되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6·15공동선언의 날, 6·25 한국전쟁기념일, 7·4 미국 독립선언일을 특정했으나 이미 예측을 빗나갔고, 남은 정치적 일정인 7·27 정전협정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총비서 등 북한지도부가 핵실험을 결정한다면, 정치·군사적 필요와 메시지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7차 핵실험은 강행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카네만(Daniel Kahneman)과 트버스키(Amos Tversky)가 제안한 전망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위험감수적 경향은 손실회피와 현상유지를 위한 결정이다. 북한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상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손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최소 2배는 더 높다.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지도부가 핵실험 강행 시점 기준, 자신들의 현 상황을 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수준에 비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커다란 위험성을 감수하는 핵실험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과 환경변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북한의 손실 여부를 한번 평가해 보자.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목적은 이중적으로, 먼저 대외적 환경이 국내적 상황에 우호적이어서 정권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이어 국내적 상황은 대외적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여 자신들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 한다. 만약 북한의 대외적 환경이 자신들의 기준점에서 볼 때 극단적 손실이거나, 국내적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북한지도부는 위험을 감수하는 강한 대결정책으로 나올 것이다.

주지하듯이, 북한의 대내적 상황은 녹록치 않다. 2017년 유엔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강력한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유지하면서 북한 주민과 경제가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식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된다. 대외적 환경도 북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뿐만 아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전쟁 방지용'으로 주장해 왔던 핵무기에 대해 '국가의 근본 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다는 '단일 목적' 정책 폐기를 분명히 했다. “극단적인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과 우호국의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consider)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자국과 동맹국·우호국의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선제적으로 사용할 핵무기는 저위력(低威力) 전술핵무기를 말한다.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사용 공언은 미국의 동맹국·우호국에게 핵우산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지 모르나, 북한으로서는 손익계산을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 더해, 2022년 3월 출범한 한국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이핵응핵(以核應核)”, 즉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에 동참하려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의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게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한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북한 역시도 한미를 포함한 적대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예고한 셈이다. 연장선상에서, 2022년 6월 21일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에서는 전술핵 실전배치와 관련된 전시작전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국내적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고 대

라 남한과도 ‘강대강’ 정면승부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공언해 놓은 상태다.

2022년 3월 28일 미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요약한 보도자료(Fact Sheet)가 공개된 바 있다.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핵무기의 사용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공격으로 한정

외적 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행동에 옮길 것이다. 7차 핵실험의 의도는 분명하다.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력 기술이 실제 운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데 방점이 있다. 김정은 총비서도 4월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어, 추가적인 핵실험은 이미 축적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하려는 차원에서 단행될 것이다.

7차 핵실험의 영향

만약 최악의 환경이 조성되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한반도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7차 핵실험은 김정은 총비서가 4월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한 새로운 핵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기존 핵전략은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발표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에 들어있다. 이 법령은 북한정권 최초의 공식 핵정책으로, 북한판 핵태세검토보고서(NPR)라고 할 만하다. 모두 10개 조로 구성된 핵전략의 핵심은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사용을 금지하는 핵불사용(No Use) 정책 내지 조건부의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을 밝힌 것이다. ‘억제-보복타격-방어’라는 3대 원칙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4월 열병식 연설에서 이런 기존의 핵전략을 분명하게 폐기했다.

이번 4월에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핵전략의 특징은, 첫째 핵무기를 사용하는 범위를 전쟁상황을 넘어 전쟁도발위험으로까지 확대했고, 둘째 북한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적대행동을 보이는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셋째 남한 역시도 북한에게 적대적이라면 핵무기 사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핵선제타격의 연장선상에서 남한을 투쟁대상화 한 것이다. 이에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정책을 더 구체화하고 한층 강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는 선제타격수단으로 사용하는 실전무기를 의미한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는 위력을 약화시켜 ‘실제 사용가능한’ 핵무기이다. 이미 미 바이든 행정부도 2종의 신형 저위력 핵

무기의 개발·생산·배치를 완료했음을 공개했다. 북한 역시도 비슷한 경로를 노정하지 않을까 싶다. 정확도는 높이는 대신 위력을 줄이고 방사능 낙진 등 부수적 피해도 최소화해 실제로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개발·생산·배치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들이 북한에게 유사시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려는 차원의 의도가 있다면 북한 역시도 미국과 동맹국에게 마찬가지로의 정치적 의도를 확인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저위력 핵무기는 실제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전략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커 사실상 쓸 수 없는,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 간주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상호확증파괴(相互確證破壞)’에 따른 위협으로 핵이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만든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소형 전술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저위력 전술핵은 정치용이 아닌 실전용 무기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세력이 북한의 근본이익을 침탈한다면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7차 핵실험이 불러올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다.

비록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위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2019년 개발·배치 완료한 저위력 SLBM(W76-2)의 경우, 핵탄두의 위력이 8kt이다. 2021년 12월 첫 생산을 완료한 저위력 B61-12 중력폭탄(B61-12)의 경우는 핵탄두의 위력이 최소 0.3kt에서 최대 50kt이다. 북한이 개발·생산·배치를 완료하고자 하는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위력도 미국의 핵무기와 유사한 정도가 될 것이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탄두의 위력이 15kt인 점을 고려한다면 저위력이란 표현은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더구나 저위력 핵무기 투하에 기존의 재래식 탄두 운반체를 사용할 경우, 식별의 모호성에 의하여 상호간의 오판과 오인에 따른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이 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심각한 파급효과와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전망이론으로 돌아가 보자. 전망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 상태와 기대수준이 최대 이익은 아니더라도 동시에 최소한 손실도 아니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판 맨해튼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도 공감은 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 모두가 지금의 현 상태를 영합적(zero-sum)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positive-sum) 상황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북한 핵실험

에 대한 군사적 대비 필요성과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은 외교적 협상이다.

미국의 핵전략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STRATCOM) 전 사령관 리 버틀러는 핵무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날려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기적은 3가지, 즉 우리의 역량, 정말 운이 좋은 행운,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종합적으로 만든 결과이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마지막 요소라고 한다. 흥미로운 말이다. 그런데 리 버틀러는 우리가 운명을 건 무모한 모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중재로 기적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미소 냉전시기에 나온 말이기 는 하지만, 지금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교훈을 주는 말이다. 한미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재연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관련국이 만나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진척을 보이도록 기도해야 한다. 🙏



〈2017년 9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지도 사진에서 공개된 핵탄두.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VOA)〉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과 그 영향

안 찬 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이에 대한 한국의 국방 당국은 물론 미국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올 해 들어 북한의 도발의 횟수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재개에 이어 추가 핵실험 준비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중국의 견제가 북한 당국자의 결심을 어떻게 바꿀지 하나의 변수는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 당국은 물론 미국도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무력증강에 몰두하는 상대의 선의와 선처를 기대하면서 ‘비위 맞추기와 달래기’를 통해 저들의 도발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으로는 잠시 무력충돌을 멈추게 할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평화는 이를 수 없다. 굶아가는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진통제 처방으로 환자의 고통을 잠시 덜어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국가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결국은 망국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세기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설파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말은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진리로 인류사회에 남아 있다.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베게티우스의 진리에 입각하여 북핵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아니,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핵위협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늘린 상태에서 제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면서 ‘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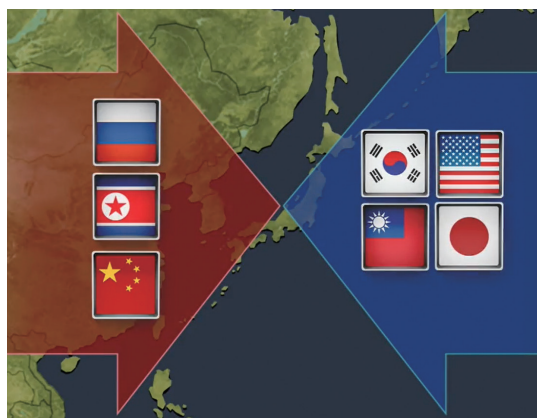
선제 핵사용 불사’까지 외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최전선의 재래식 전력을 빼는 대신 비대칭전력인 전술핵 배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서고 있지 않는가(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결정).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재개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한국의 안보위기이지만 한국이 새로운 차원의 북핵대응 전략으로 전환할 기회이기도 하다.

1. 3단계 북핵 대응 전략

개념적으로 말해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에는 외교적 전략과 군사적 전략이라는 두 부류가 있고, 이것들은 북핵 위협의 가중에 따라 다시 세 단계 대응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단계는 외교적 수단만을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설득, 강압, 제재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두 번째는 한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비핵 의무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동맹이 가진 군사적 수단을 통해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핵균형(nuclear parity), 즉 서로가 서로를 해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의지의 균형(balance of resolution)’ 또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구축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경제·정치적 부담만 될 뿐 실익이 없음을 깨닫고 비핵화를 택하게 하는 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NPT의 회원으로서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미국이 동맹국들의 독자적 핵무장을 만류하는 대신 핵우산으로 보호해주는 현 반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동맹의 파탄을 가져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의미 없는 선택(pointless choice)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2단계 전략에서 북핵과의 핵균형을 이루는 핵심 수단은 어차피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이며, 재래전력에 기반하는 한국군의 ‘3축 체제’는 보조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단계는 현 신냉전 구도가 더욱 격화되어 북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핵 및 군사적 위협도 크게 증가한 최악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미국이



기존의 반확산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독자 핵무장에 동의하여 핵을 보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한반도를 넘어 역내 핵균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가 되면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독재세력’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NPT 탈퇴, 핵무장에 대한 동맹 합의 확보,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핵동맹 체제 구축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2. 北 핵실험 시 즉각 ‘미 전술핵 재반입’ 선포해야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보수 정부들은 제1단계 ‘북한 비핵화’ 전략에만 매몰되어 ‘유화’ 또는 ‘압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논쟁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는 평양의 핵 의지와 국제정세를 착각하는 부질없는 언쟁이었을 뿐이다. 북한은 세습독재 체제의 유지와 주체통일이라는 확고부동한 목표 하에서 핵무장을 최우선 국가사업으로 강행해왔고, 신냉전 구도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를 무력화시키면서 북핵을 두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3년에 “한국이 핵보유 동맹국인 미국과 연합하여 우리에게 맞선다면 한국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핵보유법」을 제정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SLCM), 변칙기동(Pull-up)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HGV) 등 강대국형 투발수단들을 개발해왔다. 2022년 4월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그리고 5월 5일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핵사용’ 원칙과 함께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를 천명했다. “전쟁 억제”를 위해 핵을 보유할 뿐이라는 애초의 입장을 뛰어 넘어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nuclear warfighting strategy)’를

선포한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북핵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있으나마나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제는 제2단계 ‘핵우산 강화를 통한 핵균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다. 조만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즉각 ‘미 전술핵 재반입을 통한 획기적인 핵우산 강화’ 방침을 선언해야 한다.

오늘날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함에 있어서는 육상에 고정 배치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B-61-12와 같은 공대지 저위력 핵무기는 한미 간 합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전 배치가 가능하며, 핵탑재 전략잠수함의 한국 해역 상시 배치, 한반도와 멀지 않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상핵 배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핵우산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동맹조약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핵우산 강화는 북핵위협을 상쇄하고 평양의 ‘핵 갑질’을 견제할뿐 아니라 중국이 북핵을 만류하고 나서도록 만드는 데에도 효과가 크다. 때문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한국에게는 한국이 제2단계 북핵대응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할 기회이며, 윤석열 정부는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쯤 한미 양국의 안보라인 간에 전술핵 재반입의 수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제3단계 전략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당장 실행할 전략은 아니지만, 국제 안보환경이 제3단계 전략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음은 유념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북한의 무제한적 핵무력 고도화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감안할 때,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만류하면서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는 현 반확산 정책을 고수한다면 조만간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대륙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점은 한미 양국의 전략가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동맹과의 합의 하에 추진하게 될지 모르는 핵무장을 위해 꾸준히 잠재력을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3. 미국의 입장과 한국 입장의 차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을 두고 한국의 과거 정부들은 지붕이 불

타고 있는데도 처마 밑에서 재잘거리는 제비와 참새들(燕雀處堂)처럼 핵포기 설득 방안을 놓고 부질없는 언쟁을 벌여왔다. 그러는 사이에 핵보유 북한과 비보유 한국 사이의 핵비대칭성은 극대화되었고, 북한의 ‘핵 갑질’도 더욱 극렬해졌다. 베게티우스의 진리를 외면해온 것이었다. 그의 진리는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입증되고 있다. 상대의 체제를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제로섬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전쟁을 불식하고 상생(相生)으로 향하는 출발점은 전쟁 도발이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올 뿐 얻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했고, 존 케네디 대통령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실토했다. 평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고 전시에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 인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상생공영, 민족화해 등도 결국 ‘전쟁억제’라는 기반 위에서 피어날 수 있는 꽃이다. 그것이 베게티우스의 진리다. 핵문제도 마찬가지다. 평양이 핵보유를 ‘수단’이 아닌 ‘부담’으로 느낄 때 비로소 진정성이 담긴 비핵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비위 맞추기와 달래기’를 통해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호전광’으로 매도하는 자칭 ‘평화주의자’들이 국정과

언로(言路)를 장악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진리가 통하기 어렵다. 북한 스스로 “불은 불로 다스려야 한다”고 호언하는데, 왜 우리는 “핵은 핵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외면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2022년 6월 말, '한미 5세대 항공기가 전력을 합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미군 측은 "(한국에 도착한) 미 공군 전력은 여러 한미 항공기와 함께 한국에서 비행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숙달과 일상 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공군 연합훈련에는 F-35A와 F-15K, F-16, 항공통제기(피스아이) 등 여러 기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 공군 F-35A가 한국 지상 기지에 전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이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었다. 미 공군의 F-35A 외에 F-22 랩터, 장거리 폭격기 B-1B까지 투입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시행했었다. F-35A는 북한 당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로 제7차 핵실험 이후 작전행동이 주목되는 비장의 카드 중 하나다. 부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 로드맵이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김정은의 자충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향후 전망

김에스라 (북한학 박사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한반도가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북한 지역에도 6월 말부터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홍수 피해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여름철마다 홍수 피해 예방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고 있다. 더욱이 올해 봄에는 김정은이 직접 ‘건국 이래 최대 동란’이라고 지칭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유례없는 방역 전쟁을 치렀다. 김정은은 집권 이래로 꾸준히 ‘인민’을 강조하며, 인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런 김정은에게 2022년 상반기의 여러 문제들은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7월 10일 오후와 11일 오전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5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어느덧 올해 들어 20여 차례에 이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반복되는 와중에 세간의 이목은 7차 핵실험의 여부에 몰리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이 과연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그 시점은 언제일까? 등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시기는 현 시점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태섭 군 참모총장이 남측 동해안 일대를 담은 작전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등을 통해 ‘자위권’과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노선을 지속할 것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대목을 통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김정은이 주재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이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김정은은 핵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6월 21일부터는 사흘 동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기존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비해 회의가 진행된 기간이 길었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3일 간의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국방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이니만큼

이번에는 핵실험과 관련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도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와 ‘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라는 의제를 다루었음을 밝힘으로써, 핵과 미사일 관련 전략전술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총참모부가 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를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전방 부대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계획’을 추가하면서 대남 전술핵무기의 최전방 배치와 남한의 ‘3축 체계’에 대응한 선제타격 전략전술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은 핵실험에 관한 내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외부의 시각에서 다소 김이 빠지게 느껴질 수 있을 법한 내용을 결정하고 언급해오고 있다. 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던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은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북한의 도발 의도와 핵실험 가능성은?

그렇다면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나 징후를 보이지 않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표면적으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 것은 새로 개발한 미사일 역량을 정교화하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요 기지와 나아가 주일미군을 겨냥한 공격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6월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총참모부의 주도 하에 전방부대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계획’이 추가된 것은 새로 출범한 남한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후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른바 ‘새정부 길들이기’의 성격으로 비춰지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대강’, ‘정면대결’의 노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실질적인 북한의 의도는 핵실험을 내세운 ‘벼랑끝 전술’(Brinkmanship)로

볼 수 있다.¹ 벼랑끝 전술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구사되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했다. 북한은 이를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북한이 구사한 벼랑끝 전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의 1차 북핵 위기이다. 당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촉구하자, 핵비확산조약(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며 맞섰다.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은 1994년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을 추출하는 강수를 둬으로써, 한반도 전쟁의 위기 상황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이에 교착되어 있던 북미 핵협상은 급물살을 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거쳐 북미 관계의 개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등을 포함한 ‘제네바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북한은 외교협상 과정에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무엇보다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돌아봤을 때, 올해 들어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일환인 셈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의 의도는?

물론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기의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지만, 핵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시일 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반도가 장마에 접어들면서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핵실험은 그 특성상 지반 약화 등을 동반하는 만큼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장마 기간에는 핵실험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장마 이후로도 북한이 실제로

1 더욱이 북한은 벼랑끝 전술에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을 결합하여, 불확실성과 불예측성, 비합리성을 배합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더욱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벼랑에서 뛰어내리겠다는 합리적 행위자의 주장은 상대방이 신뢰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에도 벼랑 아래로 뛰어 내릴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벼랑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주장하는 행위자가 비합리적인 행위자라면 혹은 합리적인 비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상대방은 이를 예측하여 대처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풍자한 만평 (2017 Brian Adcock)〉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핵능력의 고도화만을 생각해서 핵실험을 감행하기에는 김정은이 처해 있는 정치·외교·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대북 제재에 2020년 1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는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올 봄 북한 내에서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문제에 체제 불안정성이 더해졌다. 이에 6월 들어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 비서국 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 여러 당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속적으로 당 중심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7월 초에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 생활지도 부문 일군 특별강습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당 생활지도’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핵실험을 강행하여 현재의 상황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외교적으로도 북한은 이전과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남한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다르게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내세우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은 6일 새벽 단거리용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앞선 5월 24일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 군 당국은 지대지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나아가 6월 7일에는 한미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20대의 공군 전력을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공중 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벼랑끝 전술은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극단적 상태로 몰고 가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즉 위기를 극단적으로 고조시킬수록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위기에 대한 공포심을 크게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미 당국의 단호한 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끝 전술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실험을 비롯한 극단적 도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의 극단적 도발은 협상에서의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협상 자체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의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어느 정도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최선희가 외무상에 임명되었다. 최선희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및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 북한 내 최고의 미국통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작년 9월 국무위원직에서 탈락하기도 했던 최선희가 외무상으로 승진한 것은 평화적 분위기의 대화와 협상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비롯한 극단적 벼랑끝 전술로 인한 상황에서의 대화와 협상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충수에 빠진 김정은

이미 벼랑끝 전술에 있어 베테랑인 북한이지만, 이번 벼랑끝 전술로 인해 북한은 오히려 ‘자충수’에 빠진 형국이 되어버렸다. 연이어 ‘강대강’, ‘정면 승부’를 외치며 대결 국면을 강조해 온 김정은이 이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



〈지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임명된 최섉희 외무상〉

다. 내부적 어려움을 다잡고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대강’을 외치며 위기감을 고조시켜왔는데, 이러한 순간에 뒤집는 다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체제결속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없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이전과 달리 북한의 대내외 환경 상 핵실험을 통해 이전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최악의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애석하게도 김정은이 이 ‘자충수’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진 할 수도 후진 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결국 북한에게 있어 2018년과 같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코로나 사태는 김정은이 놓친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인도적 차원의 협력 논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면서 이후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남과 북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 기회를 외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기약 없는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계기’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부디 김정은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계기’를 발견하여 붙잡을 수 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인민들을 볼모로 삼아 여전히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미, “북한의 핵 실험 시간문제, 북한의 결심만 남은 상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3번 터널 주변 현장 위성사진 (사진=CSIS)〉

미 국방부는 7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마틴 메이너드 국방부 대변인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최근 북한 성명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했으며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7월 22일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방미다. 김 원장은 방미 기간 동안 백악관과 국무부, 정보기관 관계

자들을 두루 만나 대북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영변의 5MWe급 원자로에서의 냉각수 배출 정황이 5월부터 최근까지도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는 등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

북, 신규 발열자 첫 100명대… ‘북한판 거리두기’ 시행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월 2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신규 발열 환자 170여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신규 사망자 및 누적 사망자 통계, 치명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발열 환자는 총 477만 2천290여명이며 이 가운데 99.99%에 해당하는 477만1천860여명이 완쾌되고 0.008%에 해당하는 36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치명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BA. 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역별 차단 봉쇄와 단위별 격폐, 개방 조치들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국적인 집중 검병 검진을 통하여 유열자(발열자) 장악과 치료의 과학성,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특히 "편의 및 급양 봉사단위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리고 있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수용 규모를 지도서의 요구대로 보장하며

영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언급한 '편의 및 급양 봉사단위'란 식당과 미용실, 목욕탕 등의 시설을 두루 뜻한다. 이는 식당·카페 등에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수를 제한했던 남측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슷한 조치로 보인다.

이밖에 통신은 "국경, 전연(접경), 해안, 해상에 대한 봉쇄밀도를 높이고 전 인민적인 감시체계와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장마철을 맞아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의료장비와 약품, 마스크 재료 등을 350만 달러여치 이상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6월 대중 수입액 1천934만 달러의 20%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북한이 의료장비나 의약품 등은 거의 수입하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품목을 보면 '침습 인공호흡기' 36만 달러, 마스크 제작 소재인 폴리에틸렌과 마스크 완제품 92만 달러,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과 암 피실린 등 41만 달러,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5만6천 달러, 비타민류 12만 달러 등이다.

(참고: 연합뉴스, 7월 22일) 

탈북어민 강제 복송 논란… 통일부, 복송 당시 사진 및 영상 공개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복송 당시 사진〉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복송'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복송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과 영상에서는 탈북 어민들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귀순 진정성 및 청와대 사전 인지도부 등 놓고 신구정부 관계자들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월 17일 해당 사건에 대해 이들은 다수 인원을 살인한 흉악범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수사하는 문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송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반박에 나섰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살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한편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진원센터는 7월 12일 '탈북어민 강제 복송 사건' 관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복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이라며 "이들을 복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혔다. 탈북 인권단체들도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그들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북한도 물가 상승... 7월 초·중순 쌀값 근 3년내 최고치



승은 이래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 의심 증상자 발생으로 인해 양강도 일부 도시에 봉쇄와 해제가 반복됐던 지난해의 경우 혜산 쌀값이 6~7월 일시적으로 7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기는 했지만, 봉쇄하지 않은 다른 지역(평양, 신의주)에서는 쌀값이 1kg에 4000원대로 비교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핫감자와 밀, 보리 등 대체 식량 수확이 이뤄지는 시기가 도래했지만,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7월 중순 시장 쌀값을 비교한 결과 올해 쌀값이 예년보다 40%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NK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기준 북한 시장에서 쌀은 1kg당 평양 5720원, 신의주 5820원, 혜산 62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6월 26일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이 평양 5500원, 신의주 5600원, 혜산 58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보름 사이 지역별로 200~400원이 또 오른 것이다. 특히 국경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양강도 혜산의 경우 쌀값이 1kg에 60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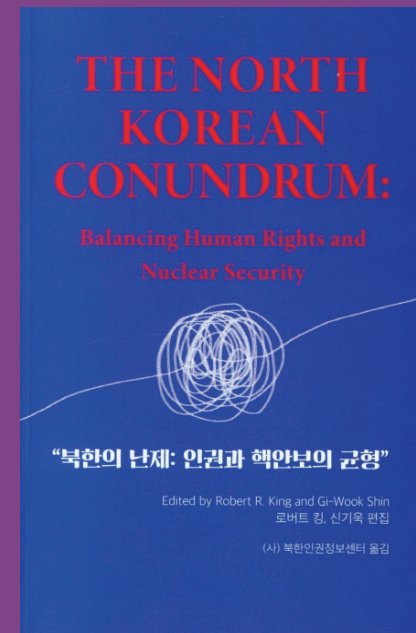
데일리 NK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이러한 물가 상

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데일리NK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슷한 시기(7월 중순) 북한의 쌀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 가장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해 7월 12일 북한 시장의 쌀 가격(1kg)은 평양 4000원, 신의주 4200원, 혜산 5500원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 북중 국경을 봉쇄한 지 약 6개월이 됐던 2020년 7월 19일에도 쌀 가격(1kg)은 평양 4000원, 신의주 4010원, 혜산 4300원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이렇듯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도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언론은 전했다. (참고: 데일리NK, 7월 12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안보의 균형

저자: 로버트 킹, 신기욱 외

출판사: 북한인권정보센터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가격: 30,000원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 인권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흔히들 양립할 수 없는 주제로 비춰진다.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하는데, 인권 문제는 그 대화의 상대인 북한 정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권 문제에는 소홀하고 뒤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하는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경우가 흔한 듯하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수해 피해도 보도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 7차 핵실험의 위협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평소에도 의약품이나 보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이었기에 주민들을 향한 인도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허가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북한 정권과 대화를 재개하기도 쉽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례 외에도 북한의 경제 상황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생계, 즉 생존권 증

진에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딜레마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많은 활동들이 불가피하게 주요 박해자인 북한 당국의 허가와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박해자의 과오를 눈감아주는 듯 비춰지거나 인도적 활동이 북한 정권의 뜻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늘 소개할 책,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안보의 균형”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제목으로 다가올 듯하다. 이 책은 북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여러 국적의 저자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각 글은 북한 인권과 핵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지만 대체로 최근 북핵 대화 국면에서 인권 문제가 소외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훑아보자면 근래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 북한 인권의 현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그 외에 외교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 등이다.

이 책의 각 글에서 제안하는 북한 인권을 위한

접근법은 예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부분이 많았다.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자들이 다 보니 북한 인권 개선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인권이 외교 무대에서 핵문제나 경제 문제 등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이 외교 무대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는 “인권과 미국 비핵화 정책 과정에서 제로섬 사고의 오류”라는 제목의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의 글이 인상적이었다. 글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보면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해외 노동력 수출과 관련된 사업은 강제적인 착취를 동반하는 인권 침해를 통한 수익 사업이며, 이러한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은 자연스럽게 핵 개발의 재원 마련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한 현 상황에서 인권 개선을 통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금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북핵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인권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북핵 문제를 위한 외교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현재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나 그 양상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개선

방안 및 아이디어도 가볍게나마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책에서 든 예 중 하나는 북한 수사 당국이 피의자 심문 시 자행하는 극심한 고문이다. 북한의 수사기관의 인권 유린과 폭력성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정밀한 수사 와 형사 처분에 필요한 기술이나 도구, 자원 및 제도의 미비 등도 고문을 자행하는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이나 아동 인권 등 비교적 북한 당국에게 부담이 없는 인권 의제들을 중심으로 먼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단순히 도의적인 이야기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인 접근에 대한 고민을 제시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 외에도 마이클 커비 박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유엔 COI 북한인권보고서의 뒷이야기나 손 킵 박사의 독일 통일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글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이 책은 북한 인권 침해의 주요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보고 이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책이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책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트럼프 전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전 정권이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인권 의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여졌다. 그래서인지 수록된 글 대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인권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전 정권이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도 있다. 책의 성격을 미리 알고 접하는 것이 독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영어 원서로 먼

저 출간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 번역되었거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번역이 좀 더 매끄럽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책의 제목과 같이 북한 인권과 핵문제는 ‘난제’이다.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판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현실적인, 즉 북한 인권을 위한 의제가 핵문제와 함께 설득력 있게 외교 무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논의 될 수 있음을 연관된 여러 아이디어와 함께 생각해볼도록 하는 책이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으로서 소개해본다.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오픈도어 익스트림 기도 축제”



지난 2020년 4월 예정되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순연되었던 “제2회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별칭: 오픈도어 익스트림 기도축제)”가 강원도 연천과 철원에서 9월26(월)~28일(수)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유럽에서 참가하는 40여명과 탈북 청년/대학생 20명, 한국참가자 30 명이 함께 어울리는 인종과 문화와 사상을 초월한 통일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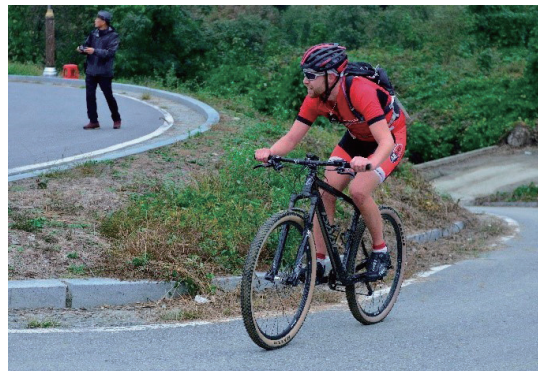
제1회 머스카슬론 (Muskathlon) 한국대회(2019년 10월5일~12일)는 3년전에 열렸다. 한국오픈도어와 네덜란드 오픈도어 그리고 스포츠 전문이벤트 기관인 4M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분단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철원과 연천에서 그 문을 열었다. ‘머스카슬론’은 극한 스포츠를 통해 전세계의 인권신장과 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4M’의 스포츠 이벤트의 일종이다. 그러나 오픈도어와 만나면서 전세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직접 느끼는 익스트림 기도축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박해가 심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그룹을 초대하게 된다.

첫번째 그룹은 유럽에서 오는 40명의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평소 북한교회와 성도들의 박해와 혹독한 삶의 이야

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분들이다. 참가비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다. 또한 개인당 1만 유로(약 1,3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개별적으로 모금하고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주변의 친구와 가족 혹은 교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매달 10유로에서 20유로를 2~3년간 모금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이번대회에 딸과 함께 참여한 애리나(Arina)는 참가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한국방문을 통해서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었고,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보았다. 그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줌 모래처럼 미미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이래로 이들에 대한 연민과 기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 그 여행의 여운이 너무 강렬해서 이번에 딸까지 데리고 같이 참석했다.”

두번째 그룹은 한국에 생활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다. 특별히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20명의 참가자들을 초청한다.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한국교회와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정착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보듬기에는 삶은 여전히 힘들다. 그러나 이롭고 얼굴도 모르는 머나먼 유럽에서 이들을 찾아오고, 이들과 함께 몸을 부딪치며, 고향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이는 먼 훗날 통일의 아름다운 꽃



으로 피어날 것이다.

세번째 그룹은 한국교회의 참가자, 자원 봉사자들이다. 통일을 깨닫게 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는 유럽인들과 탈북 청년들과의 만남은 특별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박해받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 탈북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백마고지, 노동당사를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과정에서 역사의 호흡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삼자가 어우러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대회와 마찬가지로 ‘머스카슬론’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우선 한국에서 북한 지하 교인들을 통해 북한 교회의 실상을 듣게 된다. 또한 탈북민 예배에도 참석하고 교제를 나누며, 탈북 청소년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연천 오대산 캠핑장으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고, 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이어서 DMZ 통일전망대, 백마고지 유적지, 노동당사를 방문하게 되고, 철원평야와 북한의 휴전선 너머 평강고원이 고스란히 보이는 소이산에 올라 북한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대회 당일 참가자들은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각각 산악 마라톤 6km, 10Km, 21Km &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 63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 120Km등에 참여한다. 이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박해받는 북한 지하 교회의 어려움과 고통을 몸으로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대회 참가자 마리엔 로덴버그는 그 때의 감동을 이렇게 전했다. “DMZ 가까이에서 달렸는데, 달리면서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단지 우리가 달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분의 능력으로 무언가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행함으로 인해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는 이번 대회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유럽에서 오신 외국인들은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탈북 청년들 그리고 한국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이 한국교회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의 불길과 헌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하 교회를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머스카슬론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응원하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장 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날 짜	2022년 9월26일(월) ~ 28일(수) / 2박3일 일정
참가인원	선착순 30명 (한국인 참가자 + 20명(탈북청년) + 40명(해외참가자))
일 정	노동당사/백마고지/소이산 땅밋기 기도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캠핑
참 가 비	25만원
대회종목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하이킹 *필수 아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QR코드) *자세한 내용은 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1 북한의 군사도발 중단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핵탄두 소형화를 통한 전략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형 핵무기는 파괴력을 줄이는 대신 실제 사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 도발과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은 현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핵 개발은 북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 핵 실험이 진행된다면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가 자신들을 정말 지켜주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악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코로나 대응과 식량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00여명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새로운 변이와 함께 재유행하고 있어 봉쇄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년이 넘는 봉쇄 장기화로 대부분의 무역이 제한되었고 장마당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발병과 확산은 주민들의 건강 뿐 아니라 경제적 생존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확산 시기가 주요 모내기철인 5월과 겹치면서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실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춘궁기가 지난 7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국경이 정상화되고 장마당 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다시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외부의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중국의 코로나 사태 해결과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이 예상보다도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경제적 충격도 감수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해 비어있는 집의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살균 소독을 진행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북한선교에 중요한 현장들도 계속해서 봉쇄되고 있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한 주민 통제와 반동사상문화법 등과 연계되어 강화된 단속 활동 속에서 적발된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순교와 피해의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된 여파로 각 교회들의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식어있습니다. 선교 현장도 사역의 길이 대부분 막혀있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릴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대 속에서 일꾼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 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통일

이 이루어진 후에 사역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 현장의 일꾼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현장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옵시오.

-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7월 30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명 (전임)
 Finance Officer (회계 간사) ○명 (전임)

지원 자격

- 공통: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커뮤니케이터: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업무 필수- 국제본부 기준에 따라 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영어 사용 필수)
- 회계 간사: 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 경험자 우대) 영어 능력 우수자 (필수, 영어로 의사소통과 문서 작성 필요)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우대사항

- 공통: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공통: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 회계 간사: 회계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구인시까지
- 문의: 이제나 간사 (커뮤니케이터 문의 010-4668-6356)
 송레아 간사 (회계 간사 문의 010-9717-0341)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2022

오픈도어와 함께

Camp, Pray, Run!

죽어가는 북한을 위해 C.P.R 하자!



“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요한계시록 3:2]

2022년 9월 26일(월)-28일(수) (2박3일)

장 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참 가 비 25만원(숙식포함)

참가인원 선착순 50명 + 해외참가자(40명)

대회종목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하이킹
(6km, 10km, 21km, 42km)
*필수 아님

일 정 연천 땅밧기 기도회
캠핑(고대산 캠핑 리조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아래 QR코드 참고)

